

비교와 부상...2가지 '유령'과 싸워야하는 야구대표팀

“재 국가대표 맞아?”...AG 승선한 선수들 부담
2000년 송지만 부상·2010년 김광현 신체이상
류종일호, 선수들 컨디션 체크·부상 경계 해아

야구용어에 유령태그(Phantom Tag)라는 표현이 있다. 2루에서 병살시도가 있을 때 1루 주자가 2루를 밟기 전에 공을 잡은 수비수가 2루를 밟는 흉내만 내도 명백한 아웃타이밍일 경우 심판이 아웃을 선언한다. 수비수가 2루를 밟지 않았지만 밟은 것으로 인정한다. 이것이 유령태그다. 2루에서의 총돌로 선수들이 부상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네이버하드 플레이(Neighborhood Play)의 탄생이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에 뽑힌 24명의 선수들은 이제부터 2개의 유령과 싸워야 한다. 하나는 비교라는 유령이고 하나는 부상이다. 정신과 몸 모두 완벽하지 못하면 대표팀 유니폼은 아직 내 것이 아니다.

●“그저 봐, 개보다는 애가 낫다니까”...의미 없는 비교에 선수들은 피곤하다

28일 대표팀 명단을 둘러싸고 말이 많다. 여기 저기서 대표팀에 뽑힌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를 비교했다. 29일 넥센전에 선발등판해 2.2이닝 동안 7안타를 맞고 8실점했던 한화 이태양, LG전에서 7회 구원 등판해 장원삼의 승리를 날려버린 차우찬은 즉시 엔트리에 들지 않았던 경쟁 선수와 비교됐다. 야수도 마찬가지다.

아직 많은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선수

가 대표팀에 뽑히지 않은 것에 불만이 많다. 그들의 눈에는 다른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해도 눈에 차지 않을 것이다. 충성스러운 팬이 갖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의 발달이 문제를 키운다. 개인의 의견이 마치 다수의 생각이나 진실처럼 왜곡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술자리에서 서로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수준의 얘기가 오랜 수명을 가지고 온라인에 남아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준다. 이 상처를 치료하는 일은 쉽지 않다. 치료 방법도 없다.

야구의 특성상 경기마다 매번 잘 할 수는 없다. 잘 할 수도 못할 수도 있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나쁜 결과를 더 오래 그리고 잘 기억한다. 대표팀 사령탑 류종일 감독과 24명의 대표선수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 이유다.

●송지만 김광현 과거 탈락 악몽...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대표팀 선수들은 지금부터 부상을 조심해야 한다. 선수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역대 드림팀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 송지만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대표선수에 뽑혔지만 본 경기를 앞두고 벌어진 연습경기에서 큰 부상을 당했다. 결국 추석 때 혼자 쓸쓸히 객지에서 귀국행 비행기를 탔다. 김광현도 2010년 광주우 행을 앞두고 신체이상으로 대표팀에서 탈락했다.

만일 정상적인 경기를 할 몸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코칭스태프는 교체카드를 검토할 것이다. 지금 1군 엔트리에 빠져 있는 손아섭이 빨리 팀에 복귀해야 하는 이유다. 선수들은 몸도 몸

이지만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 최근 프로농구에서는 대표팀에 뽑혔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선수가 있었다. 프로배구에서는 더 극적인 스토리가 있다. 어느 선수는 도하아시안게임 대표팀 출전을 앞두고 마지막 훈련에서 부상을 당했다. 다른 선수로 교체됐다. 결국 이 선수는 상무에 입대했는데 거기서 승부조작에 가담해 선수생활마저 끝났다. 비극이었다.

그래서 요즘 대표팀 선수들이 경기 때 더욱 몸조심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는 심정이겠지만 야구는 본인이 조심한다고 해서 부상을 피하지는 못한다. 아직 아시안게임은 시작되지 않았고 매일 매일의 경기 도중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부상이라는 유령은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여담으로 메이저리그에는 이런 우스개가 있다. 미국에서 신문의 부고란을 가장 열심히 보는 직업은 무엇일까? ①꽃가게 주인 ②장 의사 ③목사 ④심판. 정답은 ④심판이다. 마이네리 그 심판은 메이저리그 심판에 결원이 생겨야 올라갈 수 있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매일 부고란을 읽는다고 한다. 대표선수의 부상은 누구에게는 희망이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eon

인천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에 승선한 뒤 첫 등판인 29일 경기에서 부진한 피칭을 보였던 삼성 차우찬(왼쪽)과 한화 이태양. 그러나 야구의 특성상 매 경기 잘할 수는 없는 법. 대표팀에 발탁된 선수들은 이제 탈락한 선수들과의 비교라는 유령과 싸워야 한다.



방울뱀의 저주...애리조나 떠나면 펄펄, 들어오면 빌빌

■ML 인사이드

맥카티·케네디·스캅스 이적 후 꾸준한 호투
굴러온 돌 케이힐·텔가도·리드 최악의 피칭

데릭 지터가 이끄는 뉴욕 양키스가 보물을 얻었다.

양키스는 선발 로테이션이 붕괴된 상태다. 에이스 C.C. 사바시아와 우완투수 이안 노바가 60일차 부상자 명단(DL)에 오른 가운데 '일본특급' 다나카 마사히로마저 팔꿈치 이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비상이 걸렸다.

올 시즌 내내 불타오르 오리올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돌풍에 밀려 아메리칸리그(AL) 3위권에 머물러 플레이오프(PO) 진출 전망이 불투명해진 양키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난

7월9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로부터 우완투수 브랜든 맥카티를 영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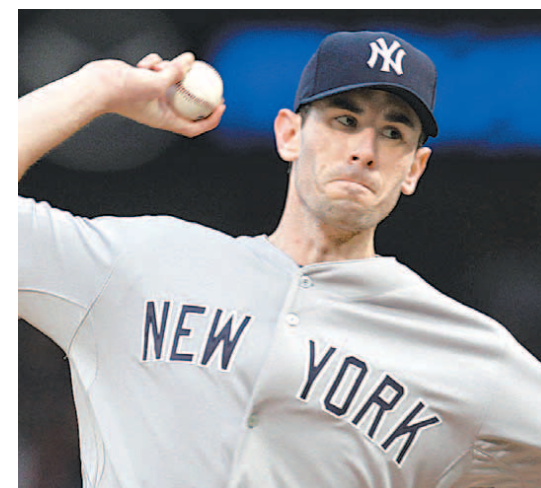
애리조나에서 거둔 맥카티의 성적은 3승10패 방어율 5.01에 불과했기에 팬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양키스 졸무늬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후 맥카티는 전혀 다른 투수로 변신했다. 3경기에 선발로 나서 18.2이닝을 던져 6실점(3자책점)으로 방어율 1.45를 기록하며 2승을 따낸 것이다. 맥카티는 "컷 패스트볼의 비중을 크게 늘린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애리조나 시절에는 팔꿈치 부상 우려 때문에 컷 패스트볼 대신 싱커를 던지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맥카티 외에도 애리조나를 떠나 다른 팀으로 옮긴 후 더 좋은 성적을 내는 투수로는 이안 케네디(샌디에이고), 타일러 스캅스(LA 에인절스), 트레버 바우어(클리블랜드)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애리조나 유니폼을 입은 뒤 뒷걸음질 처

고 있는 선수로는 트레버 케이힐, 랜달 텔가도, 에디슨 리드 등이 대표적이다. 올랜랜드에서 2009년부터 3년 동안 40승을 따냈던 케이힐은 올 시즌 1승7패 방어율 5.72로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다. 올 시즌부터 불펜으로 밀려난 텔가도는 1승2패 방어율 4.71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시즌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40세이브를 따냈던 리드는 불펜세이브를 5개 기록하며 1승5패 방어율 3.80에 그치고 있다.

애리조나의 팀 방어율은 4.23으로 콜로라도 로키스(방어율 4.98)에 이어 내셔널리그(NL) 꼴찌에서 두 번째다. 메이저리그 전체로는 26위에 해당된다. 같은 NL 서부지구 소속에 있는 샌디에이고(방어율 3.20)가 4위, LA 다저스(방어율 3.35)가 6위, 샌프란시스코(방어율 3.38)가 7위에 올라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올 시즌 개막 전까지만 해도 LA 다저스, 샌프란시스코에 버금가는 전력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뉴욕 양키스로 이적해 성공신화를 쓰고 있는 브랜든 맥카티(왼쪽)가 30일(한국시간)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원정경기에서 공을 던지고 있다. 오른쪽은 올랜랜드 에이스에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로 이적한 뒤 두릿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트레버 케이힐.

을 구축했다는 평가와는 달리 투수진이 붕괴된 애리조나는 콜로라도와 지구 꼴찌 다툼을 벌이고 있어 일찌감치 PO 진출을 포기한 상태다.

애리조나에서 최근 5년 동안 토미 존 수술을 받은 투수는 무려 8명이나 된다. 심지어 2005년부

터 지난시즌까지 8년간 평균 211이닝을 던진 '고무발 투수' 브론스 아로요마저 지난 6월17일 수술대에 올라 일찌감치 시즌을 마쳤다. 이쯤이면 '방울뱀의 저주'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듯 하다.

손권영 스포츠동아 미국통신원

누구나 좋아하는 컵도너츠가 창업대세!!

정통 아메리칸 도너츠, 아이스크림의 시원함과 달콤함이 하나로!

골라먹는 재미의 8가지 다양한 맛

컵도너츠

컵도너츠 - 980만원 창업

지역 대리점 모집!!

980만원 창업으로 20군데의 매장 운영효과!!

요즘 커피숍, 편의점, PC방, 마트, 학교/병원 매점 등에서 인기 폭발 **컵도너츠** 주문세도

- ✓ 아이스크림과 도너츠의 장점이 하나로! 아이스 컵도너츠!!
- ✓ 정통 아메리칸 도너츠의 맛과 8가지 맛의 구성으로 고객 만족!!
- ✓ 부담없는 가격으로 아이들 및 남녀노소 모두의 간식 해결사!!
- ✓ 20곳의 판매처와 냉동고, 각종 홍보물 지원 지역 독점권 부여!!
- ✓ 판매처가 다양하고 판매처 추가 확보가 용이해 쉬운 수익 증가!!
- ✓ 특별한 시간 투자없이 주문 관리만 하면 되므로 직장인의 투잡, 주부 부업으로도 안정맞춤인 사업!!

문의 02)2038-7665